

다산포럼

공부는 왜 하는가?

김동춘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지금은 혼란의 시대다. 세(勢)를 가진 자들이 자신의 잠복을 들추어 공격한 선비들을 온갖 명분을 들이면서 숙청하던 조선 4대 사화(土禍)의 시대나 '왕실의 존엄'의 명분으로 반대파를 낙인찍기의 희생자로 만들던 조선 후기 노론계의 기득권 추구 행태들이 연상된다.

공직자로서 바른 말하면 명령불복종이라 고 그 자리에서 죽어나고, 원칙대로 수사한 검찰을 수사 선에서 죽어나고, 언론도 움츠러들고, 국민의 종복이 되어야 할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허통을 친다.

마키아벨리가 말한 것처럼 권력은 악수적 속성, 즉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산다는 논리에 서 움직이는지는 모르겠다. 정치나 권력은 세상의 필요악인 점이 있다. 그런데 그들의 악수성을 견제할 때만 세상이 굴러갈 수 있

고,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그들도 죽고, 정치 공동체도 무너진다.

즉 권력자들의 탐욕과 범법을 인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견제 감시 길들이는 장치, 조직, 세력, 인물이 필요하다. 교육이 바로 그러한 임무를 갖고 있으며 교육받는 인재로 충원된 관료, 경찰, 사법, 언론이 애초부터 그 일을 하게 되어 있다.

이들 기관 종사자들의 일상 임무가 바로 공공의 이익 추구다. 이들 기관은 우수한 머리를 태고나 치열한 공부를 거쳐 경쟁을 끊고 그 자리에 올라선 사람들이 움직인다. 그들은 시험 경쟁의 승리자들이다. 이들은 오늘도 날밤을 새며 공부하는 학생들의 역할 모델이다.

그런데 그렇게 죽기 살기로 공부해서 그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은 실제 어떻게 행동하고 있나? 법으로 막고 사는 사람이 법개개의 기초와 전제 배치되는 정치적 발언과 행동을 거칠수록 한다. 교육기관의 최상층에 있는 사람이 가장 반교육적인 교육행정의 집행자가 된다. 언론기관의 책임 선에 있는 사람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른다.

"인간 세상에서 배운 사람 노릇 하기 쉽지 않구나"라고 자결된 황현(黃铉) 정도의 기개를 요구하는 것 아니고, '나라를 읽고도

살아 있으니 부끄러운 인간'이라고 자책한 박은식(朴殷植) 정도의 높은 자성 능력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

모든 학문은 공익성과 보편성을 지향하기 때문에 그저 가장 기본적인 것, 고시 공부할 때 외운 학설 중 하나라도 되새겨 자신이 하는 일이 과연 그 직무의 본령에 맞는 것인지 정도 밝힐 수 있다.

유형원은 조선조의 위기가 바로 과거제도에 있다는 것을 간파하였다. 그는 과거제가 능력, 특히 학력은 시험할 수 있으나 덕행을 시험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당시 관직은 실제 소수의 벌열(閑閑)이 독점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탄했다. 따라서 추천제를 시행하면 재능과 덕행을 겸비한 자를 뽑을 수 있고, 관직을 서양과 평민에게까지 개방하여 널리 인재를 널리 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물론 오늘날처럼 복잡한 시대에 추천으로 모든 인재를 선발할 수는 없고, 추천자가 사사로운 정에 의하여 불공평한 추천을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을 그대로 도입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의 대입, 고시와 로스쿨, 언론 입사 시험은 조선 말기의 과거와 관직 등용 제도처럼 점점 유력자나 부자들의 잔치로 변하고 있다. 재주는 있으나 공직자로서의 기본은 국민의 평균 이하의 사람이 선발되

고, 일부 기관에는 사실상 세습이 이루어진다는 소문까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교육, 선발 제도에 대해 근본적으로 회의하지 않을 수 없다.

치열한 시험의 승리자들일수록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과거에는 권력자의 총칼에, 오늘날에는 부자들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자신의 자리가 국민의 피땀과 희생 위에 서 있는 것인지 알지 못한 채 여전히 자신이 잘난 것의 당연한 대가로 생각하고, 불의의 희생에 눈감고, 강자들의 폭력에 굴종했으면서도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

지난 60여 년, 매년 치러지는 수많은 시험에서 많은 인재가 만들어졌지만, 그들이 진정 공익에 어떤 기여를 했던가? 구한말 나라 살리자던 동학군과 개화파를 능지처사(陵遲處死)하고서 일본에 나라를 팔아넘긴 고관대작들, 독재정권이 그렇게 흉포를 부릴 때 그들의 손발이 되어온 사람들을 모두 그런 시험 선수들 아니었나?

머리 좋고, 시험 잘 본 사람을 무조건 밀어온 국민들도 이제 정신 차려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교육과 시험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서는 이 불의의 시대를 청산할 수 없고, 이 엄중한 주변 국제정세에 대처할 관리나 지식인도 나오지 않을 것이다.

양동옥의 S스토리

사랑을 이끌기 위한 노력



성교육전문가·심리학박사

'눈에 끙까지가 씌었다'는 말처럼, 사랑에 빠지면 우리의 마음은 불타는 열정으로 가득 차 상대의 모든 것이 사랑스럽기만 하다. 오랜 시간 각자의 환경에서 다른 방식으로 살아왔던 두 사람이 만나 사랑을 만들어 간다. 서로의 이해와 배려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사랑은 모래성처럼 쉽게 무너질 수 있다.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자신의 삶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이 뿌리박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마음에 드는 상대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자신을 예쁘게 혹은 멋지게 꾸미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다. 대인 관계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긴 채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얼굴, 즉 페르소나(persona)로 다가가려 한다. 다시 말해, 기면을 쓰고 자신의 본모습을 은폐하는 것이다. 문제는 연인 관계에서도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기며 친절과 상냥함, 따뜻함과 배려, 유능함이라는 기면을 쓰고 사랑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아무리 철

저하게 가면을 쓴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가면 뒤 진짜 모습이 드러난다. 거짓의 가면을 쓰고 있다면 두 사람의 진실한 교감과 사랑을 이루기는 어렵다.

사랑하는 사람과 많은 것을 공유하고자 하는 욕구는 당연하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상대에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지 않고 관심을 받는 것도 위로를 받는 것도 귀찮아 하며 갈등이 생기면 높은 담으로 가려진 훈장 만의 공간으로 숨어버린다. 어떤 이들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존재하는 것처럼, 너무 의존적이고 집착이 강하다. 이들은 눈 앞에 상대가 없으면 안절부절 어찌할 바를 모르며 끊임없이 사랑을 확인하고 갈구한다. 또 어떤 이들은 상대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것처럼 잘해주다가도, 갑자기 돌변하여 냉하니 찬비리를 일으킨다. 기분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번역이 심해 상대를 불안하게 만든다.

이처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정서적 유대감을 갖는 것을 애착이라고 한다. 애착은 생의 초기에 자신을 애유한 사람, 특히 부모와 얼마나 따뜻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맺었는가에 따라서 안정 애착과 불안정 애착으로 나뉜다. 중요한 것은 부모와의 애착 유형이 이후 대인 관계나 연인 관계, 더 나아가 결혼 생활 및 자녀 관계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부모와 안정 애착을 형성한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안하게 다가가며 또 상대를 편안하게 받아들인다. 반면에 불안정 애착인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외롭게 만

들거나 구속하거나 불안하게 할 가능성이 많다.

이 세상에 완전무결한 사람은 없다. 사람은 누구나 어느 정도 부족함을 느끼고 열등감을 갖게 마련이다. 흔히 열등감은 부끄럽고 숨겨야 하는 감정이라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열등감을 느낀다는 것은 스스로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보상하려 노력하기 때문에 자가완성을 위한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열등감을 적절히 지배하지 못하고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자신의 가치를 깎아내리며 열등감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뿐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소라 깨닫기 속에 움츠러들게 한다.

훈자였을 때는 자유롭다. 먹고 싶을 때 먹고, 놀고 싶을 때 놀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일하고 싶을 때 일하는 방식은 누구에게나 편하고 즐거운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과 장기적인 연인 관계를 맺거나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린다는 것은 너와 나, 즉 공동체의 행복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을 전제한다. 이를 위해서 서로는 그동안 누렸던 자유 일부를 내려놓고 책임과 헌신이라는 아름다운 구속을 이행해야만 한다. 훈자였을 때의 자유로움을 버리지 못하고 자신의 권리만을 주구하는 행동은 태동이 물어치는 언덕에 공동체의 울타리를 치는 것과 같다.

사소한 말다툼이 생겼을 때 그것을 해결

하려 하기보다는 극단적인 말로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 생채기를 내는 사람이 많다. 말끝마다 '당신은 항상', '당신은 절대'라는 수식어를 붙여 상대의 기를 꺾는다. '이기적', '잔소리꾼'과 같은 부정적이거나 경멸적인 단어들을 사용해서 상대를 매도하기도 한다. 상대의 과거 잘못들을 끌어내어 곱씹기도 하며 그동안 마음 상했던 일들을 속사로 풀어놓는다. 또 관계를 끝내는 최악의 상황을 연출하며 상대를 협박하기도 한다. 부정적인 대화 방식은 다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뿐더러 사랑하는 사람에게 깊은 분노와 좌절을 안긴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요소는 앞에서 언급한 것 이외에도 무수히 많을 것이다. 하지만 자신 속에 그려진 위험 요소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바꿔나가려고 노력한다면 그것은 사랑을 이끄는 요소로 털바꿈할 수 있다. 서로에게 가장 빛나는 별과 같은 사랑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 아니면 서로를 파괴하며 지나가는 사랑을 만들 것인가는 서로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 그동안 나에게 익숙하고 잘 맞았던 신발을 과감히 벗어 던지고 너와 나는 새 신발에 발을 맞추려 해야 한다. 당신은 두 시간이 훌쩍 넘는 밸리드 공연을 지루한 내색 없이 공감하며 즐길 수 있겠는가? 당신은 태초부터 시작되었을 것 같은 다큐멘터리 같은 군대 이야기를 흥미로운 눈빛으로 귀 기울일 수 있겠는가? 너와 나의 신발에 발을 맞추면 가능한 일이다.

기고

지자체장 공약이행평가에 숨겨진 것들

김대성
전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선 5기 지자체장 공약이행평가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지난 6월 민선 5기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결과를 발표한 데 이어 언론의 지자체장 공약이행 관련 보도가 줄을 잇고 있다.

지자체장 공약이행평가는 어렵지만 국민의 알권리 확보 차원에서 필수적이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광역단체장 공약이행평가는 2235개 공약을 대상으로 무려 102일이 소요되었다. 특히, 대의민주주의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은 정당과 정치 후보자들의 공약에 대한 선호에 기초하기 때문에 선거 매니페스토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지렛대이다.

그러나 최근 지자체장 공약이행평가와 관

련된 언론 보도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등 시민단체의 의도와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공약이행이 건수나 퍼센트, 등급 또는 순위 등으로 흰원되어 실제 공약의 내용적 측면이 간과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지자체장 공약이행평가에서 핵심은 공약이행 소요 예산에 지자체마다 천차만별이다. 예컨대, 전남도의 공약이행 소요 예산은 77조원인데 반해 광주시는 5조원에 불과하다. 도의 경우, 강원도 57조원, 경기도 54조원, 경상북도 19조원, 충청북도 11조원, 전라북도 8조원, 충청남도 7조원 등이다. 이번 공약이행평가에서 충청남도, 경상북도가 좋은 평가를 받은 이유이다.

지자체장의 공약이행 소요 예산의 차이는 지자체가 처한 여건에서 비롯된다. 사업단지 입지와 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시설이 부족한 지자체일수록 소요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자체의 여건을 고려하지 못한 채 예산 집행률에 근거한 공약이행평가는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도와 강원도 등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성장동력산업과 사회간접시설은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고 이행 난이도가 매우 높은 게 현실이다.

지자체장 공약이행평가의 또 다른 이면은 정책집행 단계에서 발생한다. 정책집행의 고전이 된 프레스만과 월다브스키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일자리 창출 정책이 집행과 정의 문제로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한다. 즉, 정책집행은 다양한 이해 관계자, 길고도 지루한 논쟁, 예측하지 못한 문제 발생 등 매우 복잡한 과정이다. 예컨대, 전남도가 추진한 5GW 풍력산업 프로젝트 등 대형 공약사업은 신중한 정책결정도 중요하지만 정책집행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한다.

때문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정

한 연차별 목표달성을, 공약이행 완료분야 등 평가항목은 공약 준수라는 소극적 프레임에纳入 공약의 실현성을 확보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즉, 공약이행률도 중요하지만 어떤 공약인지가 더 중요한 항목이다.

마사 누스바움은 최근 '시적 정의(Poetic Justice)'라는 저서에서 사람들이 처한 맥락이나 인간적 가치를 제외한 재 수자 등 산술적 측면에만 매달리는 사회의 폐해를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다. 그런 배경에서 이제 우리도 공약에 대한 소극적 혹은 표면적 평가에서 벗어나 공약의 진정한 가치를 직시해야 할 때이다.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8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社說

알쏭달쏭 도로명 주소 서둘러 보완해야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도로명 주소가 시행되지만 쉽게 알아볼 수 없는 데다 흥보도 미흡해 큰 불편이 예상된다.

주민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지만 주소 표기 방식의 전환에 대비한 관련 당국의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2014년 시작되면 모든 주소 표기는 이전까지 쓰었던 '동'과 '번지' 등 '자번 주소'에서 'OO로 XX번길'이 들어간 도로명으로 바뀐다. 이를 위해 지난 2011년부터 광주·전남 각 자치단체는 10억 원을 투입해 나름대로 적극적인 흥보도 했지만 새 주소를 식별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한다. 한마디로 이 정책은 도입 단계부터 실패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전남우정사업본부가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처리한 우편물 중 도로명 주소를 사용한 물량은 15%에 지나지 않았다. 또한 안전행정부가 전국 17개 시·도 19세 이상 성인 남녀 7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도로명 주소

를 알고 있다'는 응답 비율은 34.6%에 그쳤다.

특히 도로명 주소 표지판이 훼손되거나 잘 보이지 않아 제대로 목적지를 찾지 못하는 경우도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지판이 찾는 건물과는 동떨어진 가로등이나 신호등에 설치돼 있는가 하면 나뭇가지 등에 가려져 애를 먹는 곳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보더라도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지 않고 제도를 시행한다면 주민들이 쓰어야 할 불편과 하소연은 심각할 것이다.

도로명 주소는 국가적으로 준비해온 중요 사안이다. 남은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당국은 노출된 미비점을 최대한 보완하고, 제도가 속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치사율 60%' 2차 교통사고 대책 급하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속도로 교통사고 중 2차 사고는 모두 408건, 사망자는 246명(치사율 60.3%)에 달한다. 1차 사고의 치사율이 11.9%라는 점을 감안하면 무려 5배 넘는 수치다. 이는 1차 사고로 인해 주의력이 흐트러져 있는 데다 차량 밖에서 사고가 일어나 2차 사고의 위험성이 그만큼 높다는 데 있다.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운전자의 안전의식부터 달라져야 한다. 사고 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잘잘못을 때지거나 변을 당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도로에서 사고나 차량고장이 발생했을 경우 차량을 갖길로 신속하게 이동 시킨 뒤 삼각대·비상등을 이용해 차량 위치를 알리고, 견인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교통당국도 운전자의 안전교육 강화는 물론 아직도 불충분한 도로의 안전시설을 확충하는 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無等鼓

"긴 세월동안 삶은 늘 거기 있어 왔다. 그러나 삶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삶을 본 사람은 모두 삶으로 가버렸기 때문이다. 아무도 다시 삶을 떠나 돌아온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정준 소설 '이어도' 중에서)

제